



【해설】  
항공업계 항공변동  
아시아와 경합  
진어어 최대 수혜  
03



Economy

|            |   |                 |           |   |                       |
|------------|---|-----------------|-----------|---|-----------------------|
| 코스피        | ↑ | 2248.63 (+5.75) | 코스닥       | ↓ | 765.02 (-1.73)        |
| 금리 (미국 3년) | → | 1.77 (0.00)     | 환율 (원/달러) | ↑ | 1135.70 (+2.60) (16일) |

# 방향 바꾼 中 반도체굴기… “소자 대신 장비·재료”

〈素子〉

지난해 中 반도체 장비 매출 131억 달러… 전년대비 59% ↑ 전 세계에서 성장률 가장 높아

한국 매출액은 177억 달러 올해 양국 순위 역전 우려도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라인. /뉴시스

중국 반도체 굴기가 장비와 재료 등 기반 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특히 중국은 국내 장비업체에도 군침을 흘리는 상황이라서 반도체 생태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제반도체재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매출은 131억달러로 전년보다 59%나 성장했다. 성장률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대한민국 매출액은 177억달러로 전년대비 1% 떨어졌다. 올해에는 양국간 순위가 역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빠르게 손을 떼고 있다. 푸젠전반도체는 미국의 장비 수출 거부로 올해 D램 양산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 낸드플래시를 양산 중인 YMTC도 기술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견

제를 받는 반도체 소자 중심의 제조업 대신 장비와 재료 산업에 주력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도체 굴기를 상대적으로 간섭이 덜한 반도체 기반 산업에서 우선 실현하려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중국은 반도체 재료 시장에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웨이퍼 시장에서 점유율을 12.5%로 전년보다 1.7% 높였다. 21.3%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을 빠르게 추격 중이다.

특히 팹리스(반도체 생산설비 없이 설계·개발 전문으로 하는 회사) 부문에서는 매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이 점유율

68%로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만(16%)과 중국(13%)이 뒤를 따르는 형국이었다. 우리나라는 1%를 넘지 못했다.

인수 합병 전략도 바꿨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을 사들이는데 실패한 뒤로는 소자 제조보다는 장비나 부품 업체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왕테크가 네덜란드 반도체 부품사인 넥스퍼리아를, 칭화유니그룹이 프랑스 스마트칩 업체 랑셀을 인수하는 등이다. 반면 대형 매물로 평가받는 글로벌 파운드리(GF)에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중국 자본에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직까지는 인수 시도에 응하는 업체가 없었지만, 반도체 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자칫 첨단 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다.

한 반도체 시장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 제재로 반도체 소자 제조 대신 장비와 팹리스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을 매입하려는 시도 역시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인류의 유산’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15일 저녁(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발생,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 치고 있다. 1163년 공사를 시작해 1345년 축성식을 연 노트르담 대성당은 나폴레옹의 대관식과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장례식 등 중세부터 근대 현대까지 프랑스 역사가 숨 쉬는 장소이다. /연합뉴스

## ‘파운드리 초격차’ 삼성전자, 5나노 공정 완성

크기 줄이고 효율·성능은 높여 7나노 제품은 이달 중 공식출하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 라인 조감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EUV(극자외선) 5나노 공정을 완성하고 다시 한 번 ‘초격차’를 이어간다. 국내 팹리스(반도체 생산설비 없이 설계·개발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관련 업계 동반 성장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EUV 기술 기반 5nm(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전자 5나노 공정은 7나노 공정 제품보다 크기를 25% 줄이고 전력 효율은 20%, 성능은 10% 높일 수 있다. 설계 비용도 축소 가능하다.

앞서 경쟁사인 대만 TSMC도 이달 초 EUV 5나노 공정 설비를 완료했다

체를 더 미세하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단, 운용 난도가 높아 수율을 높이기 어려워져 정상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찌감치 EUV를 들여와 도입을 준비해온 반면, TSMC는 올해 들어서야 EUV 전환을 발표했다. 올해 말 5나노 기술이 적용된 애플 프로세서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율과 성능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이달 중 EUV 7나노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공식 출하할 예정이다. 6나노 공정 역시 생산 협의를 진행 중이며, 제품 설계를 마무리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 양산을 계획이다.

/김재웅 기자

## 정상회담 피하는 아베 갈데까지 간 韓日관계

한일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WTO(국제무역기구) 수산물 분쟁’ 등으로 인해 한일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WTO 관련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정계와 재계 일각에서는 한일관계가 ‘스틱스강(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저승의 강)을 건너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우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우리 대법원은 작년 10월30일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한일관계 정상화)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다. 즉 우리 대법원은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정치적 해석’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일본 정부는 반발했다. 다수의 일본 매체들이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이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 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 보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게 이를 방증한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

문 등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들은 “작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금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 중”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극심한 반발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WTO가 지난 11일 한일 양국간 수산물 분쟁 판정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청와대 통상비서관실은 15일 문 대통령에게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1심)을 뒤집고, 모든 실제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를, 지난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각각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으나 상소심(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우승준 기자 dn1114@

##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50년만에 퇴진 선언

‘동원참치로’로 유명한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1969년 동원산업을 창업하고 회사를 이끌어 온지 50년 만이다.

동원그룹은 앞으로 김 회장의 차남인 김남정 부회장이 중심이 돼 이끌어 나가게 된다. (관련기사 11면)

김 회장은 16일 경기 이천의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열린 ‘동원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여러분의 역량을 믿고 회장에서 물러서서 활약을 지켜보며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동원그룹